

초등학생들의 기호식품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

조 현 식 · 김 원 식 · 김 양 수 · 최 선 미 · 추 현 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

A research study of school children's preferences for insanitary food near school

Environment & Sanitation Division. Gwangjin-gu Office. Seoul
Cho Hyun Sik. Kim Won Sik. Kim Yanng Su. Choi Sun Mi. Choo Hyun Min

Abstract

Cheap, low quality food products that are unhealthy are prevailing among children. These low quality products are stirring up the urge to purchase among children and so it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arrive at a solution for the indication of negligence on the side of manufacturing, processing, circulation, and marketing management, a survey asking about interests and preferences on insanitary food products was held during May 2, 2005 to June 30. The subjects were 540 students and 510 parents form 5 elementary schools located at Gwangjin Gu, Seoul including Ja-yang elementary school, etc. This study aims at arranging measures against insanitary food products and contribution to maintenance of children's health.

서 론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싹들이 즐겨먹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 식품의 안전이나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의 구매 욕구만 충족하는 값싼 저질제품이 많아 제조·가공·유통·판매관리 등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2005. 05. 02~2005. 06. 30 사이에 서울 광진구 소재 자양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학생 540명과 학부모 510명으로부터 어린이·학부모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 사 기 간

○ 2005. 5. 2 ~ 6. 30

조 사 대 상

- 5개 초등학교 학년구분 없이 임의 추출한 학생 540명
- 5개 초등학교 학년별 15~16명의 학부모 포함 510명

학 교 구 분	계	자 양	광 장	중 마	장 안	구 의
계	1,050	230	220	200	200	200
학 생	540	120	120	100	100	100
학부모	510	110	100	100	100	100

조 사 방 법

○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5개 초등학교의 퇴교길 학교정문에서 학년구분 없이 즉석에서 총 5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 실시

○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5개 초등학교 각 학년별 20명씩의 어린이들에게 60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익일 510매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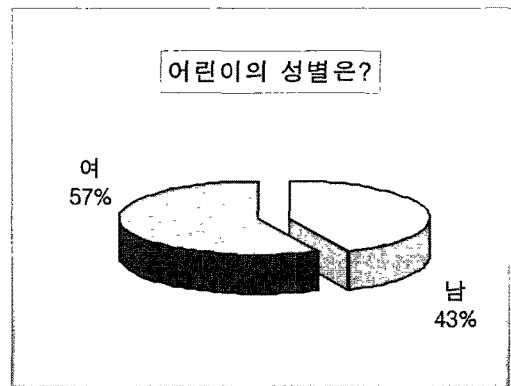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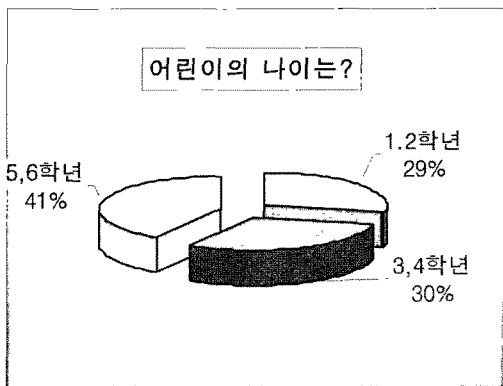
조사의 필요성 및 동기

- 면역력이 약하여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값싼 불량식품 등의 구매욕구 충동을 억제키 위함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들은 대부분 저가 제품들임
- 초등학생들이라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상시 주지되지 않음
- 경제적 불황 등의 이유로 어린이에게 주는 용돈이 적다
- 문방구 등 소규모 판매상의 불량식품으로 인한 이윤 추구 자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실효성 있는 불량식품 근절대책 마련
- 학부모나 선생님·관공서 등의 지도·계몽이 미흡한 실정임

설문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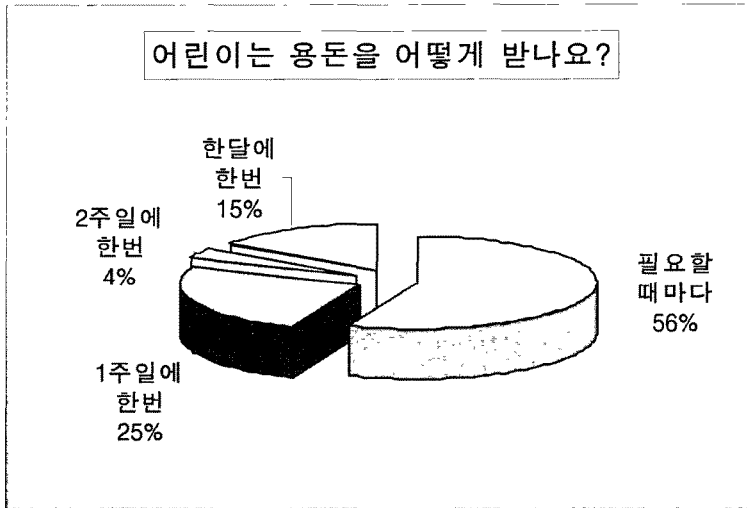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어린이 중 5~6학년생이 41%로 가장 많았고, 3~4학년이 30%, 1~2학년이 28%였으며 남, 녀별로는 남학생이 43%, 여학생이 5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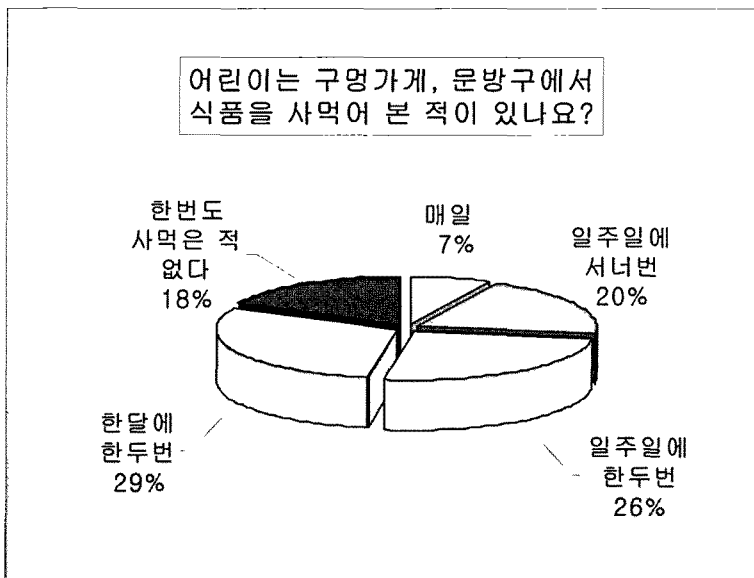
㉸ 『어린이는 용돈을 어떻게, 얼마정도 받나요?』의 질문에는 ‘필요할 때마다’ 56%, ‘1주일에 한번’ 25%, ‘한달에 한번’ 15%, ‘2주일에 한번’ 4%로 나타나 용돈은 대체로 필요시 마다 받는 편이었으며

▶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받는 어린이 중 ‘500원 미만’이 34%, ‘600원 ~ 1,000원’ 44%, ‘1,000원 ~ 2,000원 이상’ 23%로 우리 어린이들은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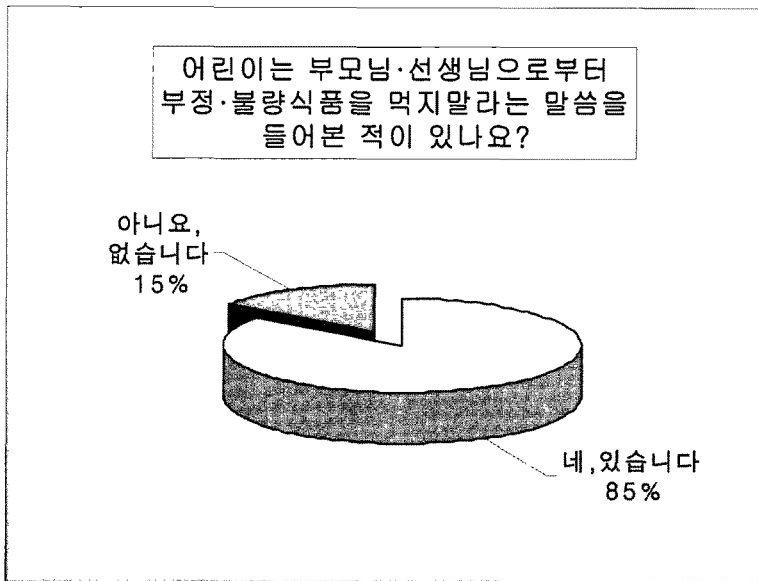


▶ 용돈을 <1주일에 한번> 받는 어린이 중에는 ‘500원 미만’이 2%(3명), ‘600~1,000원’ 24%, ‘1,100원~3,000원’ 35%, ‘3,100원 이상’ 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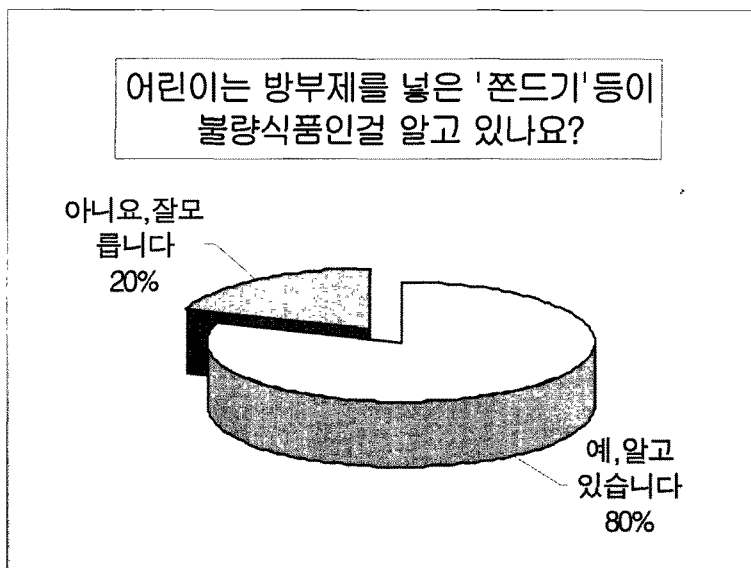
▶ 용돈을 <필요할 때마다> 받는 어린이 중에는 ‘500원 미만’이 2%(3명), ‘600~1,000원’ 24%, ‘1,100원~3,000원’ 35%, ‘3,100원 이상’ 41%로 나타났다.



㉸ 『어린이는 학교 주변 구멍가게나 문방구에서 식품을 사먹어 본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 ‘한달에 한두번’ 29%, ‘일주일에 한두번’ 26%, ‘일주일에 서너번’ 20%, ‘한번도 사먹은 사실이 없다’ 18%, ‘매일 사먹는다’가 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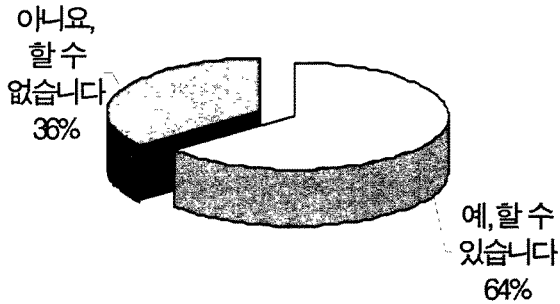


『어린이는 학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부정·불량식품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85%, ‘아니요’ 15% 대체로 부정·불량식품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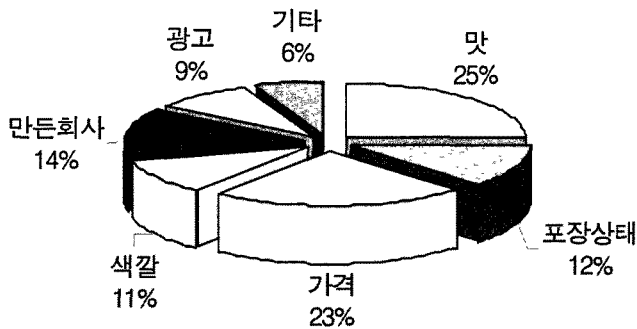
『어린이는 방부제를 넣은 '쫄면'나 담배보양으로 제조포장한 초콜릿인 '맛초코' 등이 불량식품인걸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80%, ‘아니요’ 20%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떤 것이 불량식품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부정·불량식품을 구별할 수 있나요?



○ 단순히 『어린이는 부정·불량식품을 구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64%, ‘아니요’ 36%로 아직도 구별이 어려운 어린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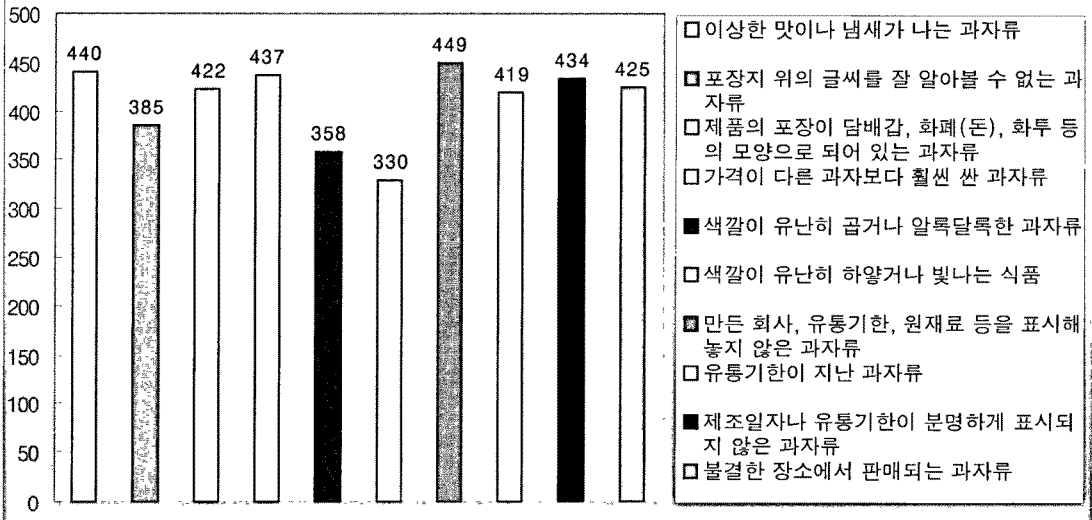
어린이가 과자류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어린이가 과자류를 구입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맛’ 25%, ‘가격’ 23%, ‘만든 회사’ 14%, ‘포장상태’ 12%, ‘색깔’ 11%, ‘광고’ 9%, ‘기타’ 6%로 맛과 가격이 적당한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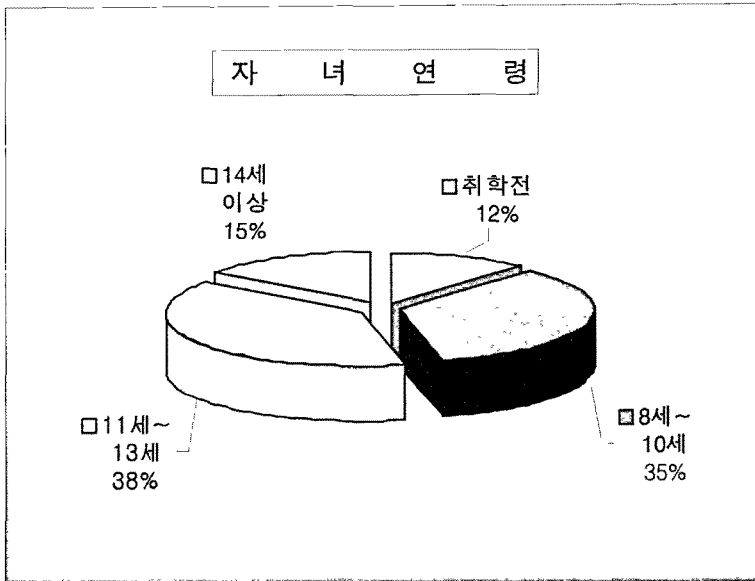
○ 『어린이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은?』이라는 질문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류’가 가장 높았으며,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과자류’와 ‘가격이 다른 과자보다 훨씬 싼 과자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깔이 유난히 하얗거나 빛나는 식품’이 가장 낮았다.

어린이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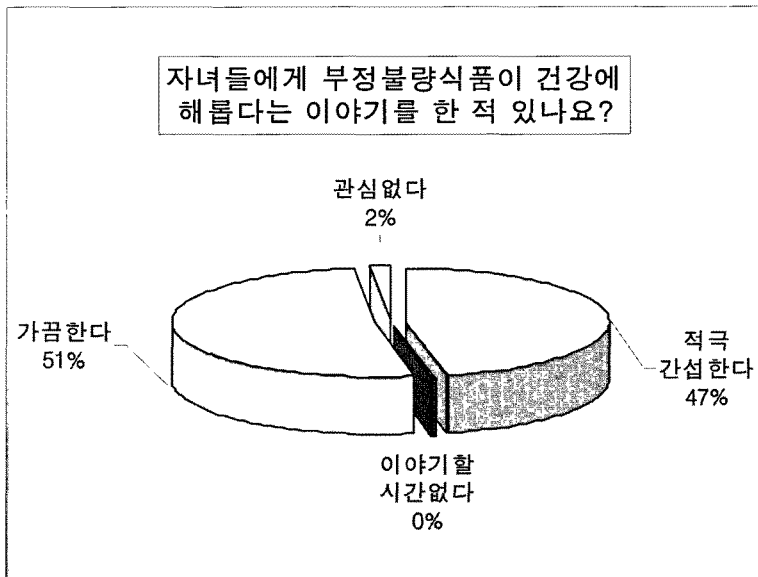


○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라는 질문에는 ‘문방구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불량식품은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가격이 싼지?’, ‘왜 색깔이 많은지?’, ‘왜 어른들은 불량식품을 만드는지?’, ‘어린이 용돈으로는 보통과자를 사먹기 어렵다’ 등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부정·불량식품의 식별법이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관해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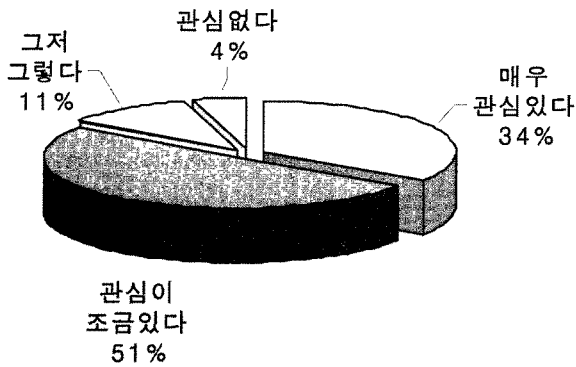


○ 조사대상 학부모 자녀들의 연령 분포대를 살펴해보았더니 초등학교인 '8~13세'의 자녀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어 30대 학부모로 추정되며, '미취학아동' 12%, '14세 이상'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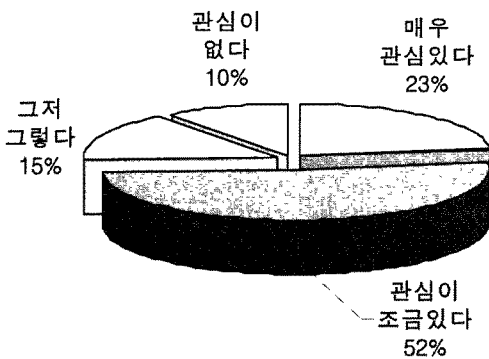
○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정·불량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는 '적극 간섭한다' 47%, '가끔한다' 51%, '관심없다' 2%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주변 구멍가게들을
관심있게 살펴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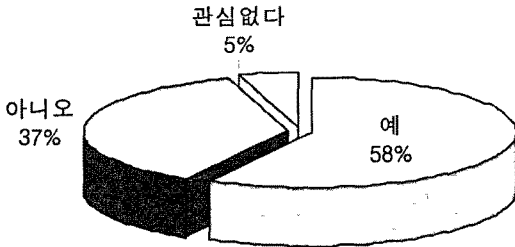
『초등학교 주변의 구멍가게를 관심있게 살펴본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는 ‘매우 관심있다’ 34%, ‘관심이 조금 있다’나 ‘그저 그렇다’와 ‘관심없다’가 전체 6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가 기호식품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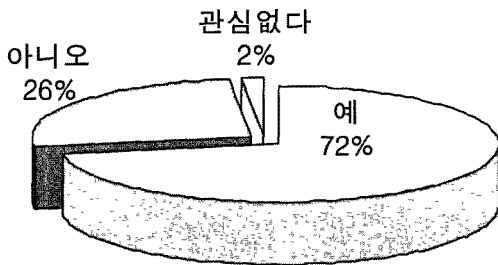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매우 관심있다’ 23%, ‘관심이 조금 있거나 그저 그렇다’와 ‘관심없다’가 77%로 나타나, 초등학교생들의 관심정도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관심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교육이 있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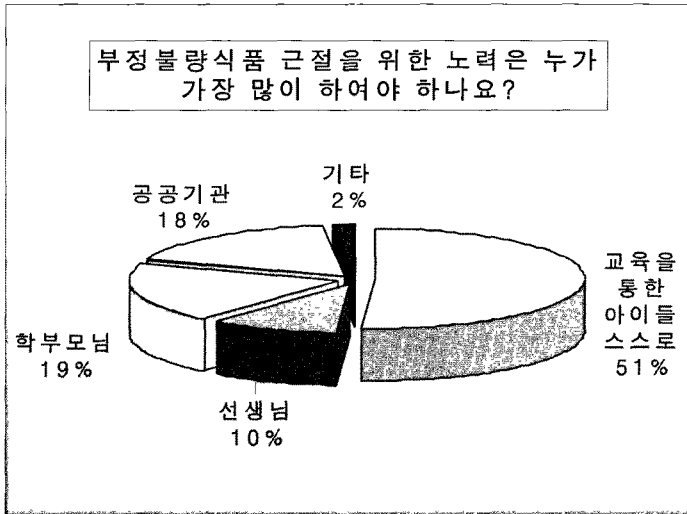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참석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의향이 있다’가 58%, ‘아니오’나 ‘관심없다’가 42%로, 절반 정도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말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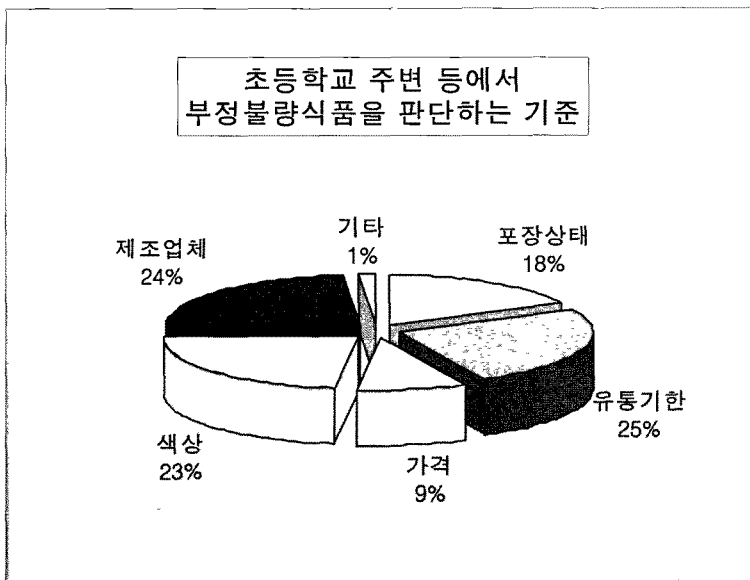


○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말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는 질문에 ‘있다’ 72%, ‘아니오’나 ‘관심없다’가 28%로 나타나 어린이들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은 누가 가장 많이 하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교육을 통한 아이들 스스로’가 51%, ‘학부모’ 19%, ‘공공기관’ 18%, ‘선생님’ 10%, ‘기타’ 2%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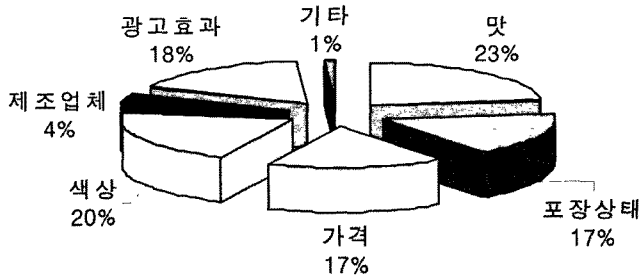


부모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학부모, 공공기관, 선생님 공동으로 적절한 규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유통기한 경과’ 25%, ‘색상’과 ‘제조업체’가 각각 23%, ‘포장상태’ 18%, ‘가격’ 9%, ‘기타’ 1%로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유통기한 경과였다.

아이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아이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맛’ 23%, ‘색상’ 20%, ‘광고효과’ 18%, ‘가격’이나 ‘포장상태’가 각각 17%, ‘제조업체’ 4%, ‘기타’ 1%로 나타나 우선 맛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 『학부모입장에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슬라이드나 사례중심으로 교육시켜 아이들에게 식품안전의식을 심어주자’는 등의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어린이들 스스로 자율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관리 감독하자’, ‘아이들이 토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과정이나 경로 등을 자료를 만들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 ‘문방구에서는 식품의 판매를 금하자’ 등의 많은 의견들로 보아 학부모들도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식별하고 인체 위해로움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를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고찰 및 개선대책

○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은 저학년(1~2년)보다 고학년(5~6년)이 많았으며, 용돈은 月500원 미만 사용하는 어린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月600~1,000원인 점으로 보아 최근 우리 경제의 장기 불황의 영향이 어린이들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한달에 한번도 식품을 사먹지 않는 초등학생도 18% 되었으며, 선생님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 편이나 아직도 부정·불량식품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학생도 36%나 되므로 여기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 초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모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대표적인 부정·불량식품으로 알고 있었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는 맛이나 색상, 가격을 가장 중시하였고, 문방구에서는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연구·검토해 봐야 할 듯하다.

○ 초등학생들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30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보거나 학교주변 구멍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진다.

○ 학부모의 58% 정도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받기 원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정·불량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 식별법 등을 사례중심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학교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 부정·불량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 식별법 등을 CD에 담아 초등학교에 배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 위 내용을 바탕으로 2개월여에 걸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담당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 제작하여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구입 장면 및 식별법,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편의 드라마를 통해 설명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장면, 서울 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면,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캠페인 장면 등을 수록 성동교육청관내 39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고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2003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3
- 2004년도 식품위생업무편람. 서울특별시. 2003
- 200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12
- 식품산업발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육성방안.
한국식품산업협회. 2004. 1
-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현안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04월(통권제90호)
- 한국안전수준의 제고를 위한 HACCP의 확대 적용.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0월(통권제72호)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현안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07월(통권제57호)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확립을 위한 현안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07월(통권제57호)
-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